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CATI & ARS

제81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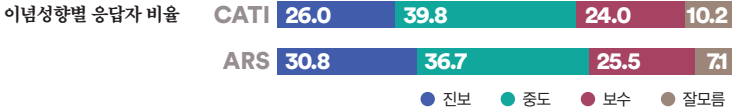
제96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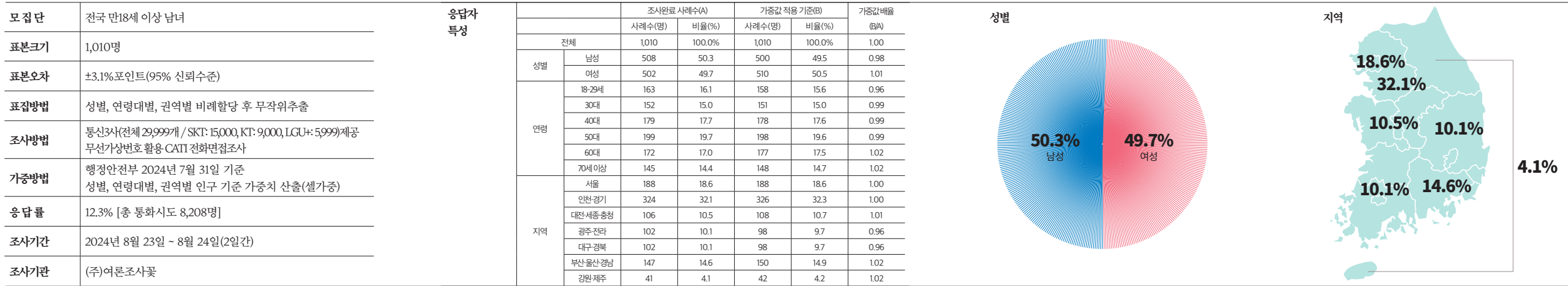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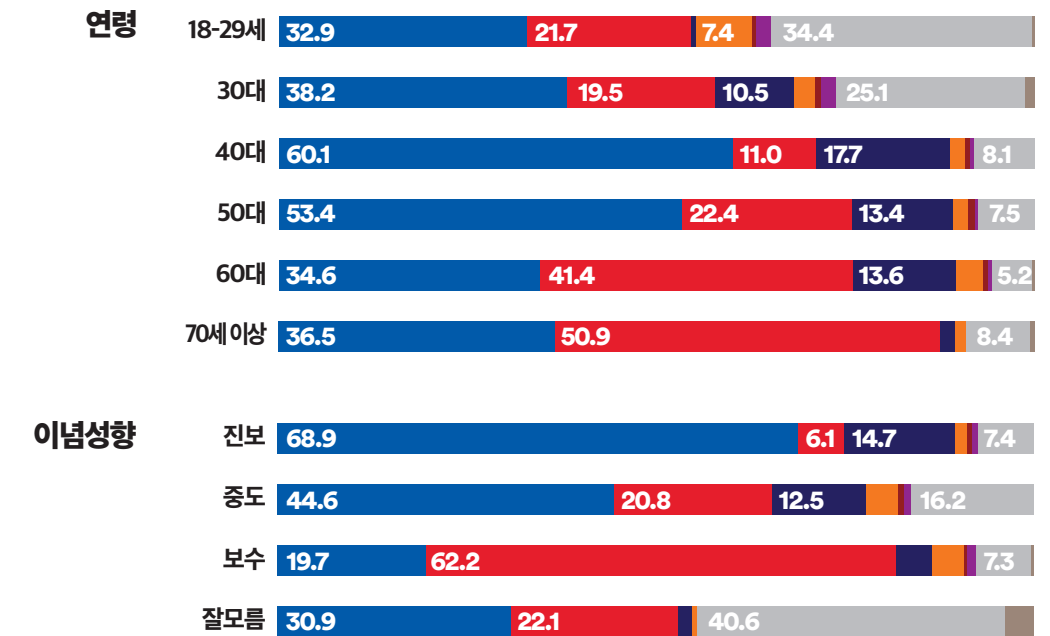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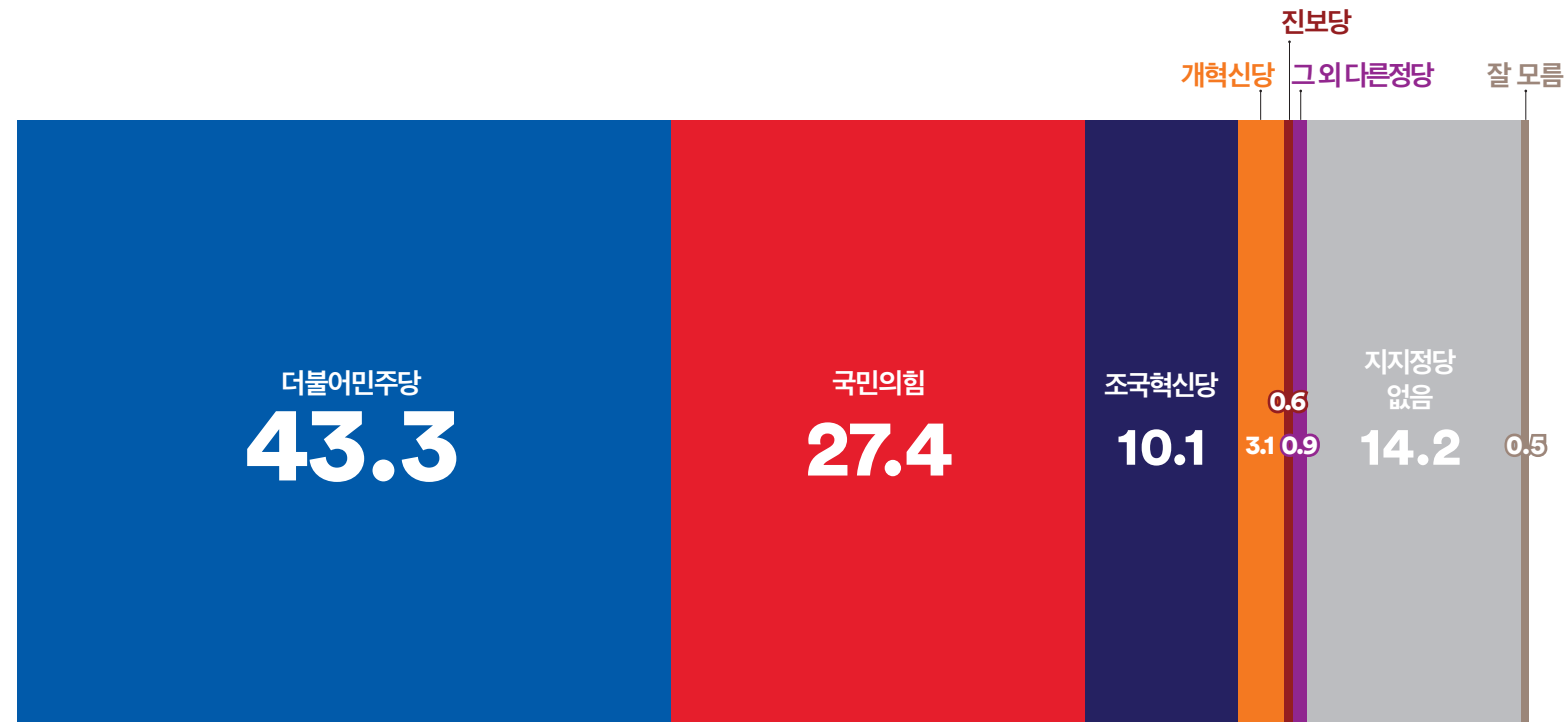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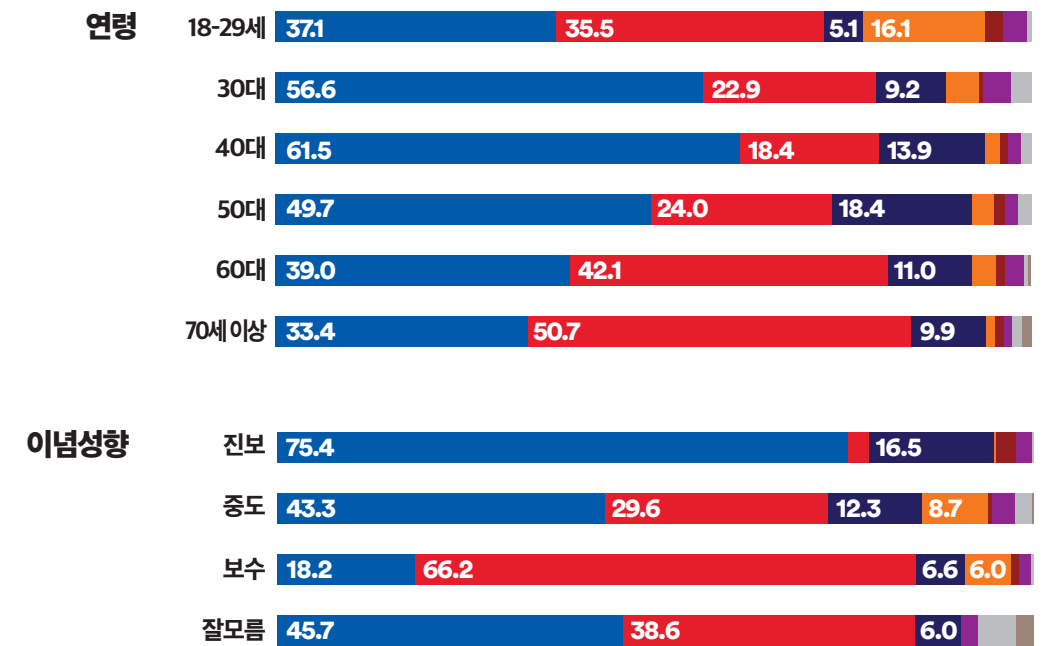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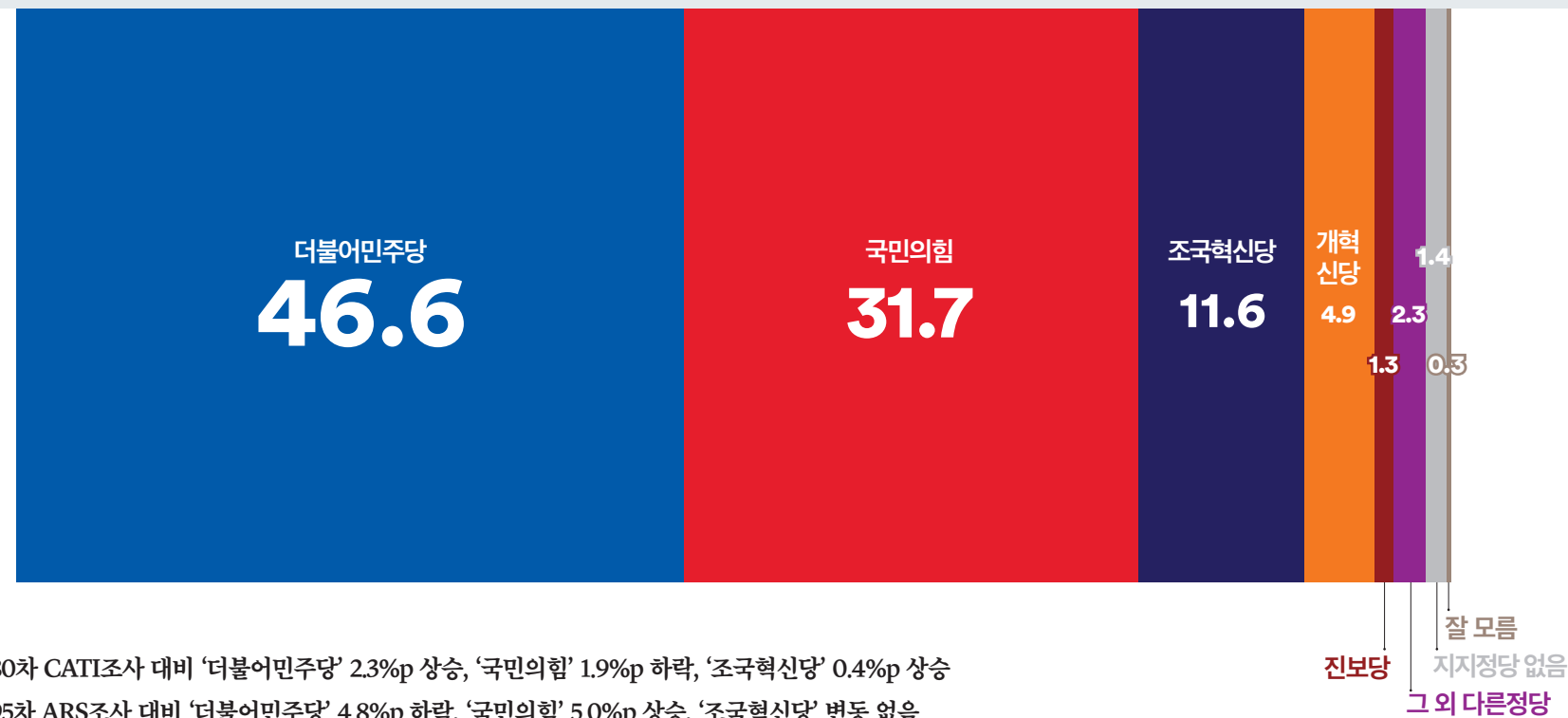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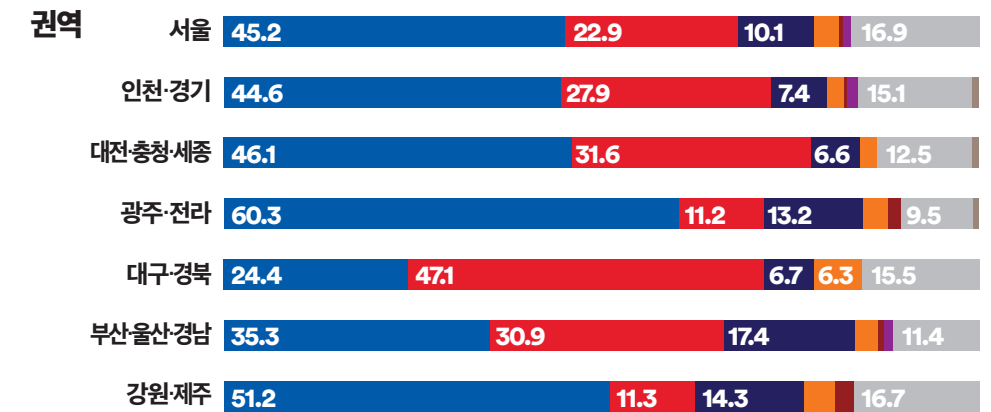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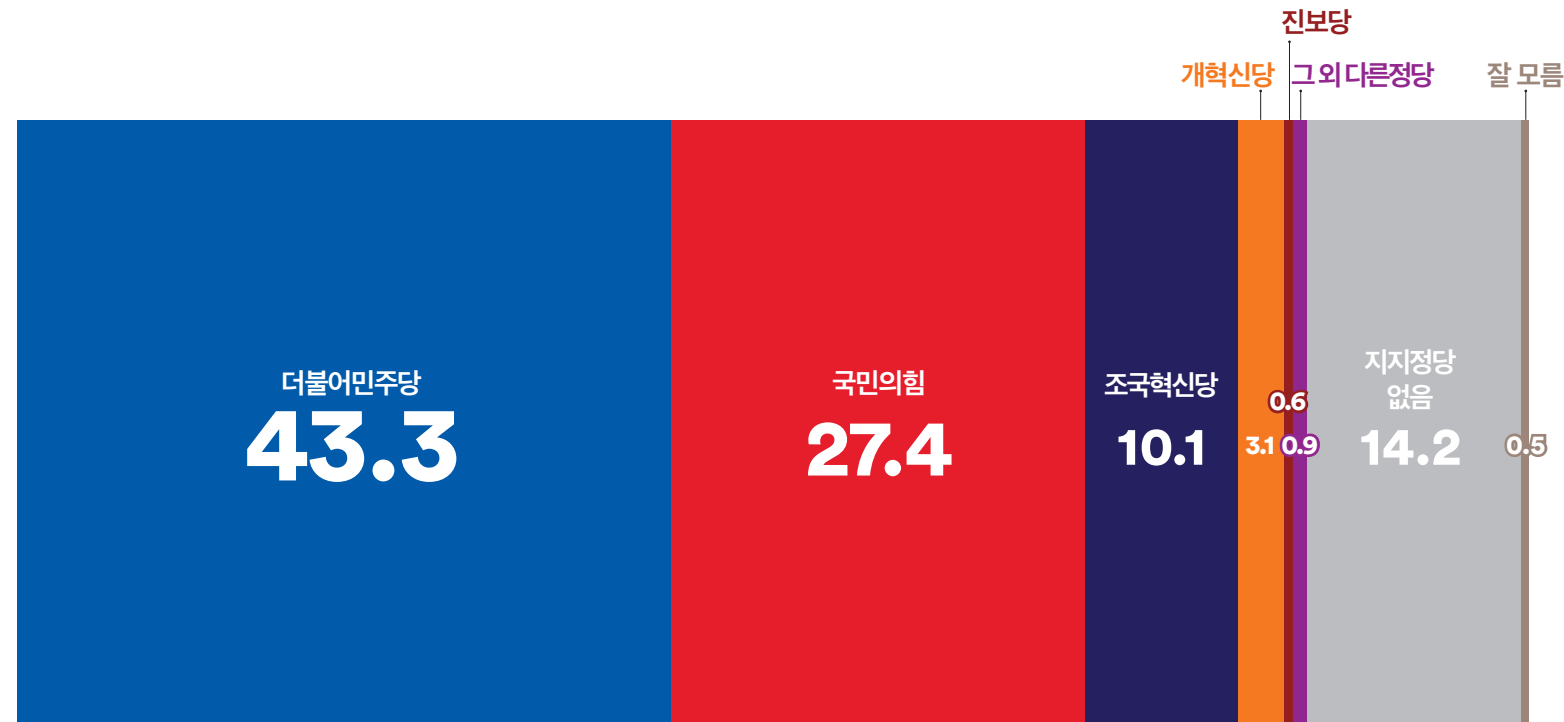


80차 CATI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2.3%p 상승, '국민의힘' 1.9%p 하락, '조국혁신당' 0.4%p 상승
 95차 ARS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4.8%p 하락, '국민의힘' 5.0%p 상승, '조국혁신당' 변동 없음
 '더불어민주당': '국민의힘'간 격차는 CATI 15.9%p, ARS 14.9%p(지난주: CATI 11.7%p, ARS 24.7%p)
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간 격차는 26.0%p, ARS 26.5%p(지난주: CATI 21.4%p, ARS 36.3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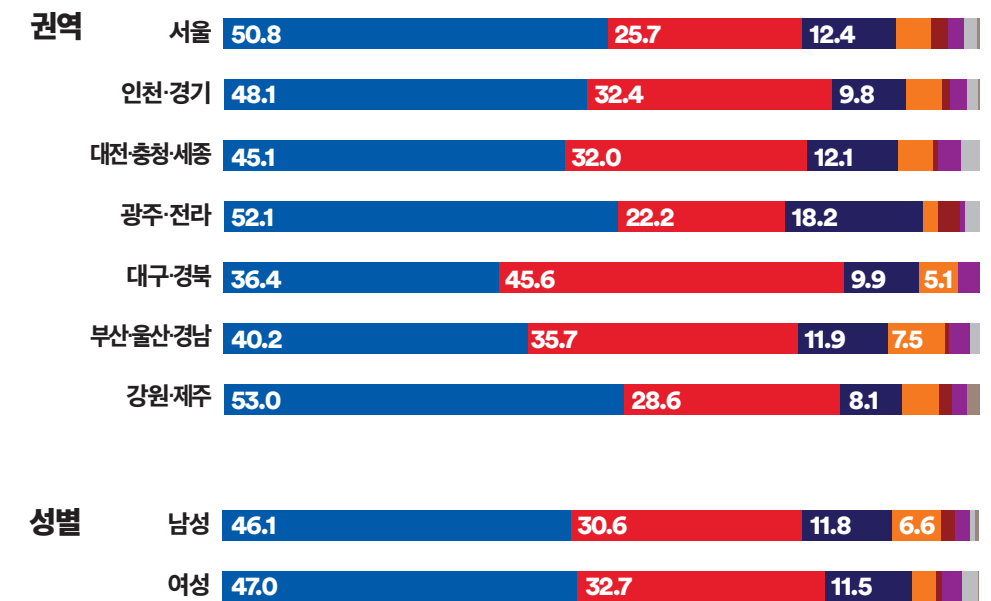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
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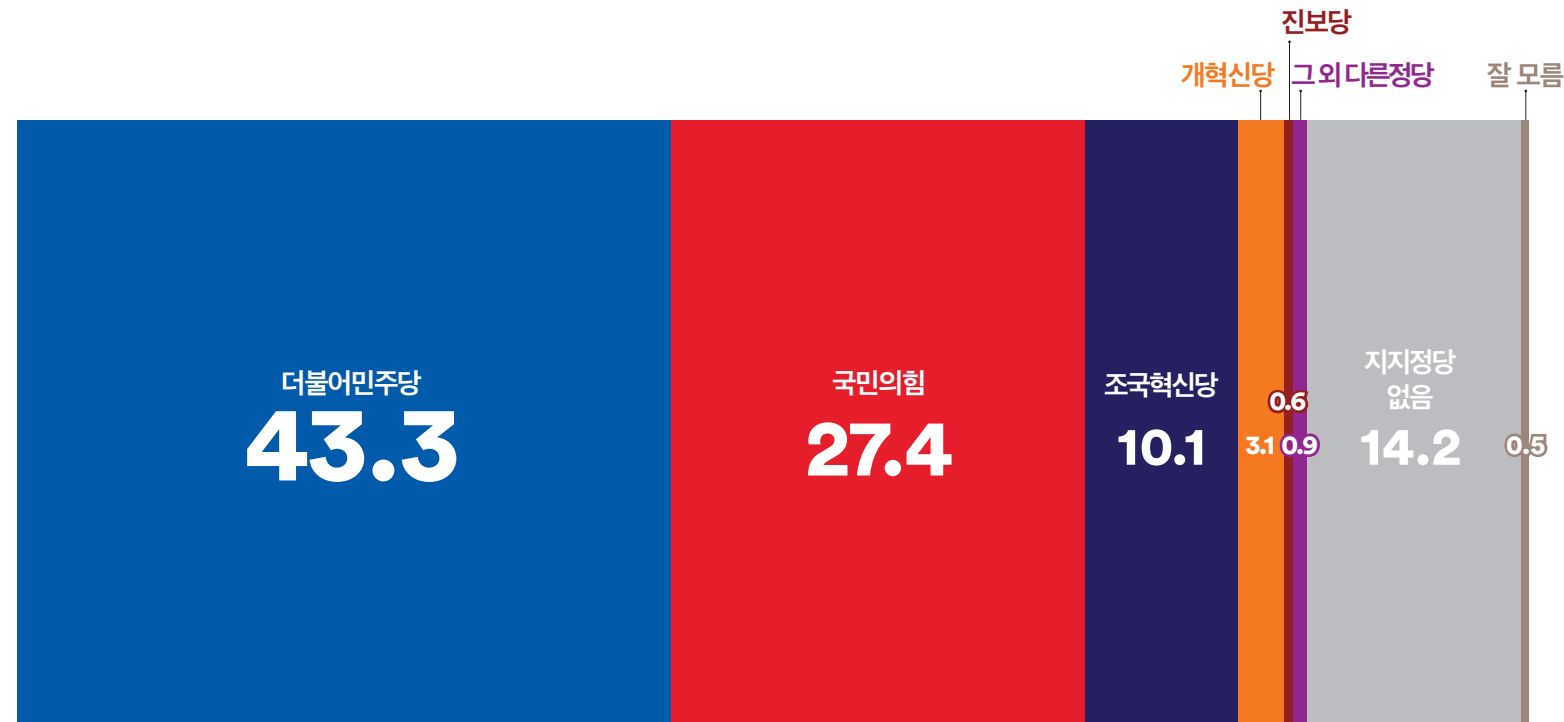


남녀 모두 '더불어민주당',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이 '국민의힘' 대비 우세
 TK권의 경우, 두 조사 모두 '국민의힘'이 '더불어민주당',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 대비 앞서거나 우세
 '국민의힘': '더불어민주당'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'더불어민주당'이 수도권과 호남권(CATI 강원·제주 포함)에서 우세
 '국민의힘':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을 비교하면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이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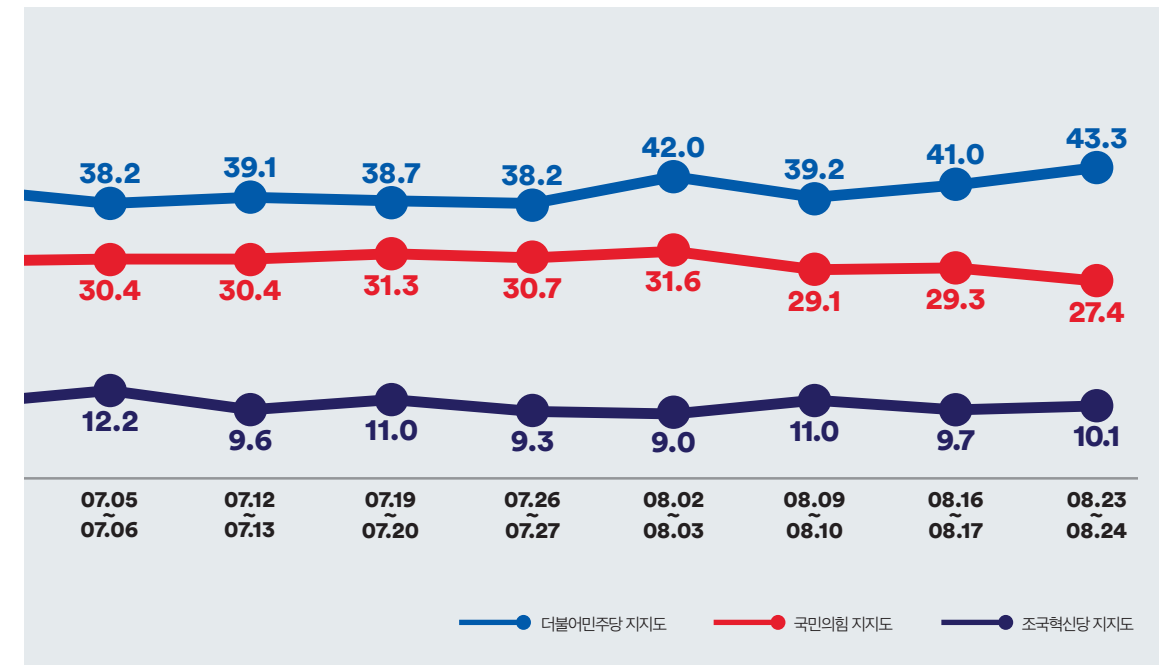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
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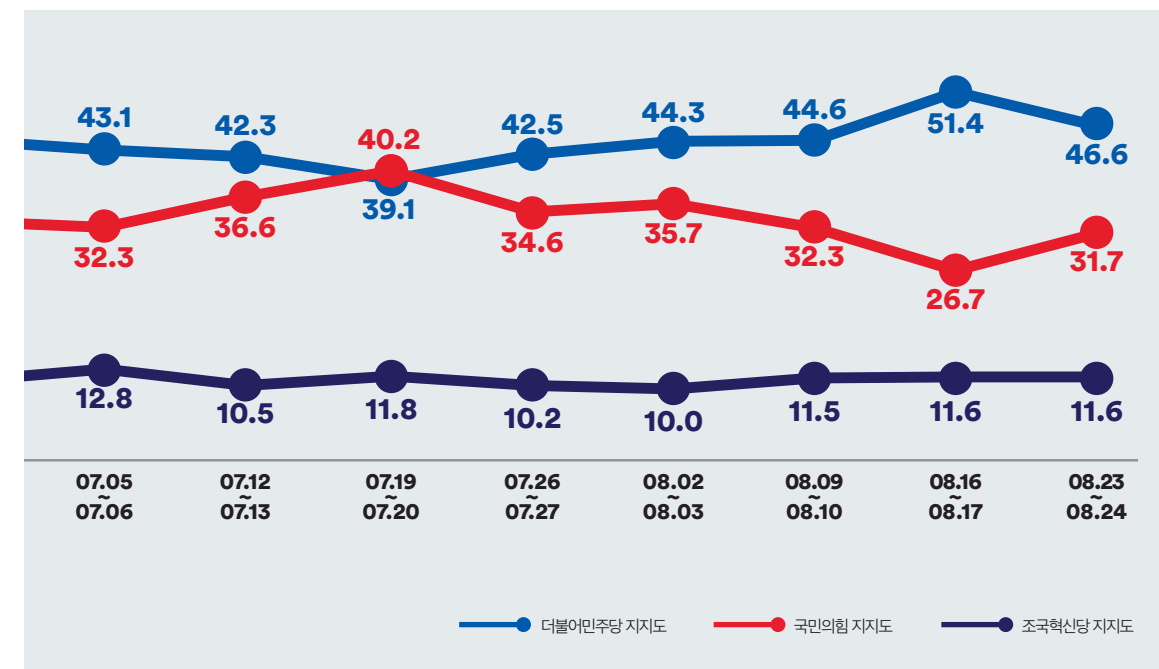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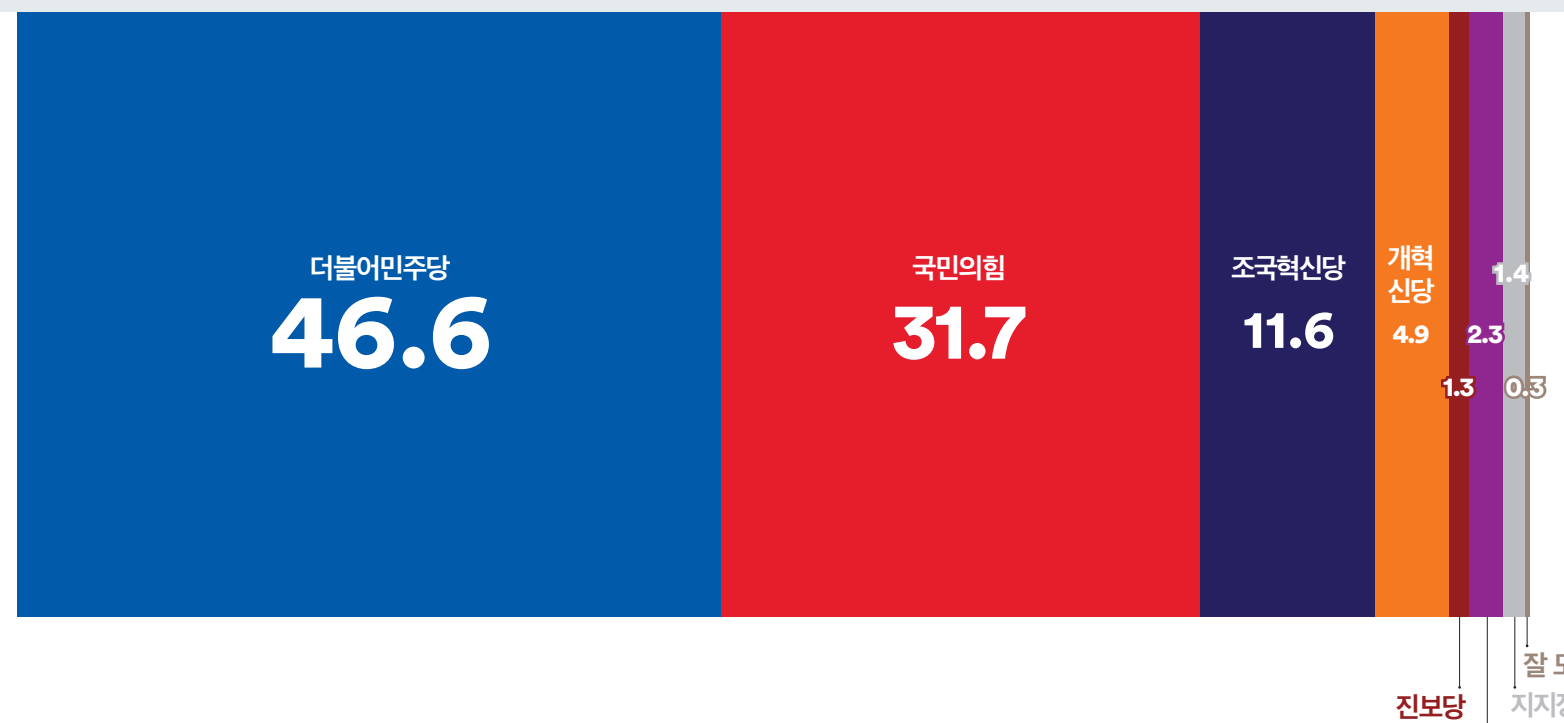
CATI



주차별
정당지지도



ARS



CATI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4.6%, '국민의힘' 20.8%, '조국혁신당' 12.5%의 지지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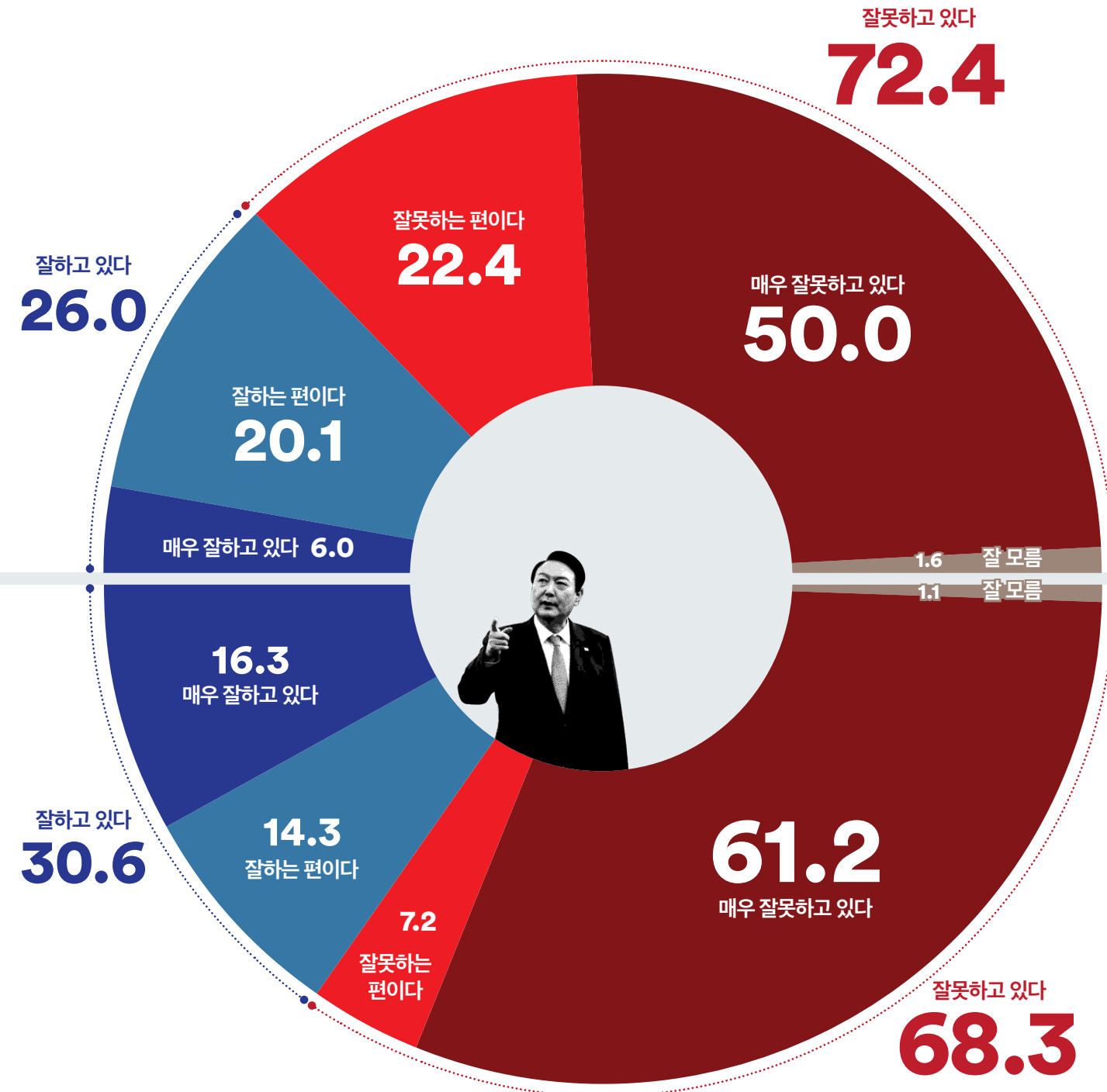
ARS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3.3%, '국민의힘' 29.6%, '조국혁신당' 12.3%의 지지율을 보임

중도층에서의 양 세력(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)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6.3%p(80차: 34.7%p), ARS 26.0%p(95차: 39.2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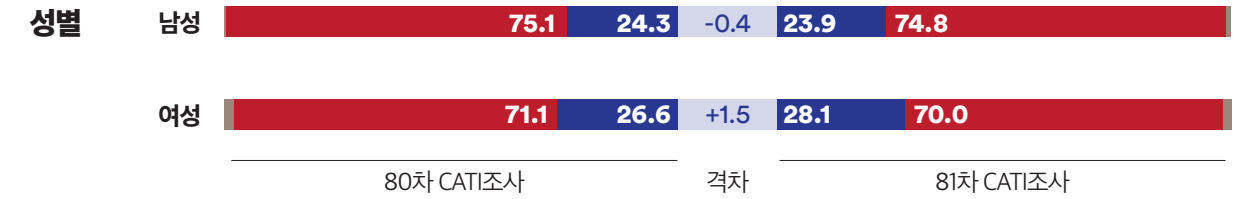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
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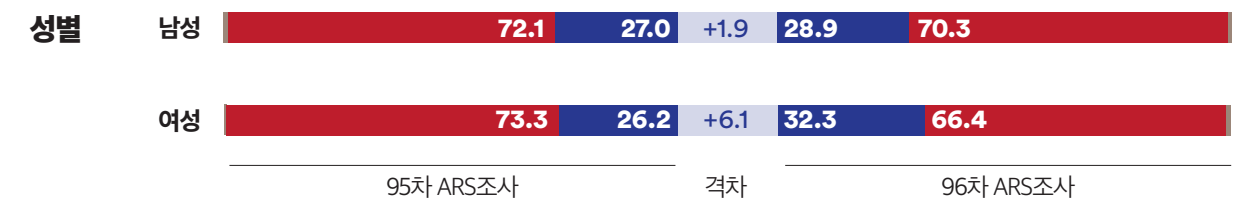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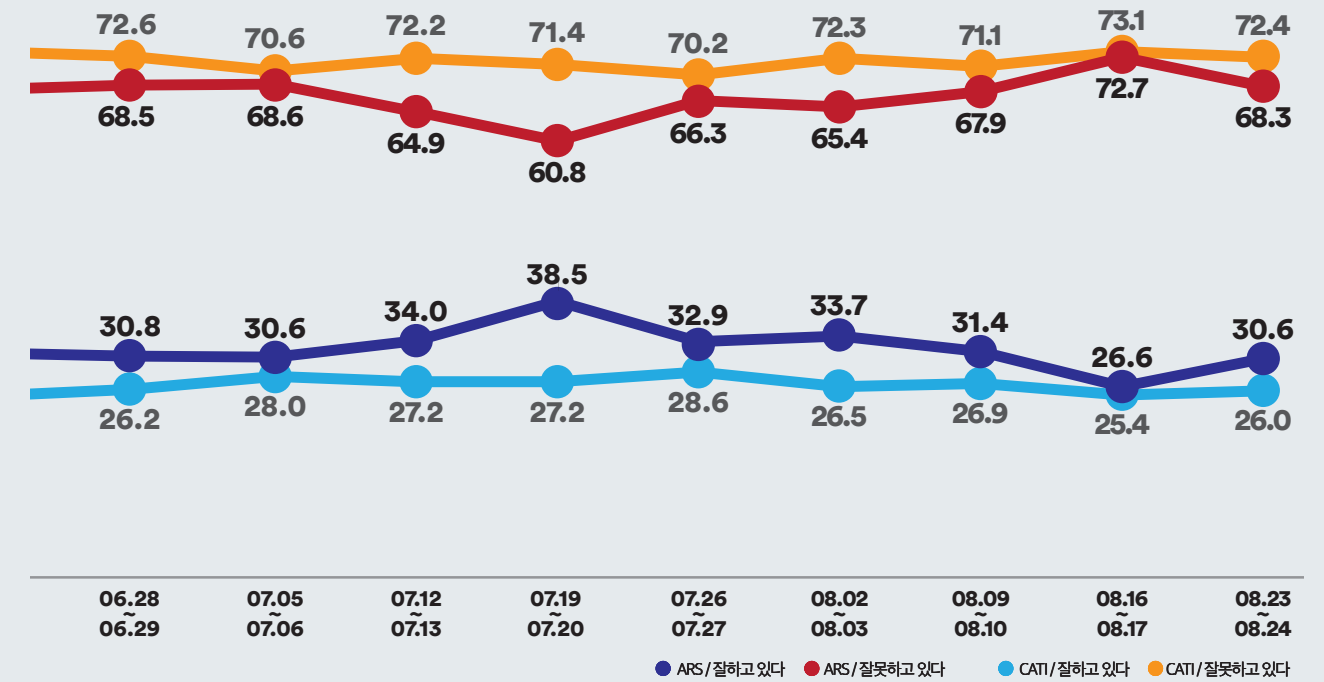
CATI



지난 80차 CATI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0.6%p 상승, '부정' 평가 0.7%p 하락(격차 46.4%p)
 지난 95차 ARS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4.0%p 상승, '부정' 평가 4.4%p 하락(격차 37.7%p)
 두 조사의 모든 권역, 남·녀 모두, 60대이하 연령층에서 '부정' 평가 앞서거나 우세
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63.4%p(지난 조사:64.5%p), ARS 45.1%p(지난 조사: 53.3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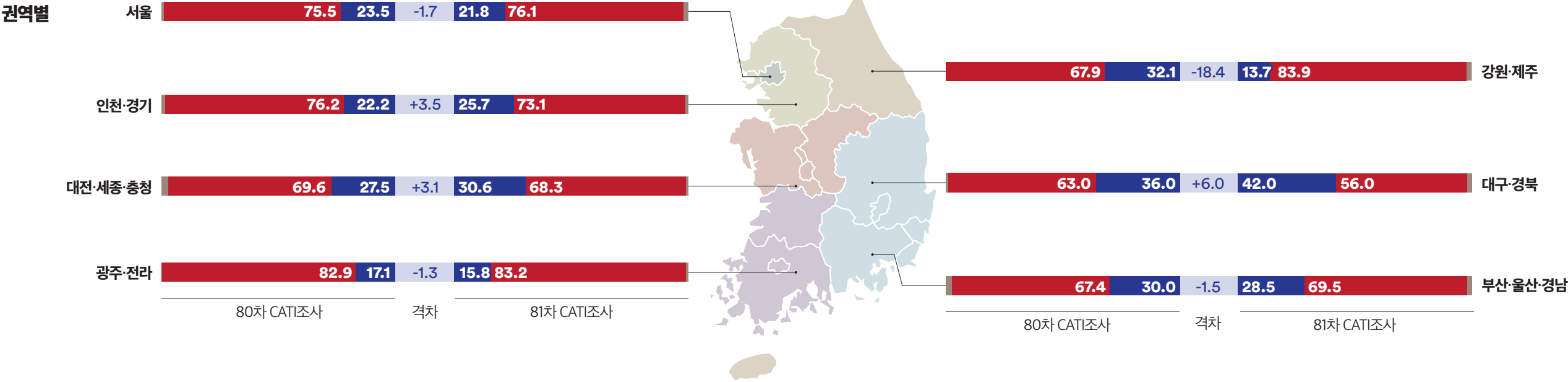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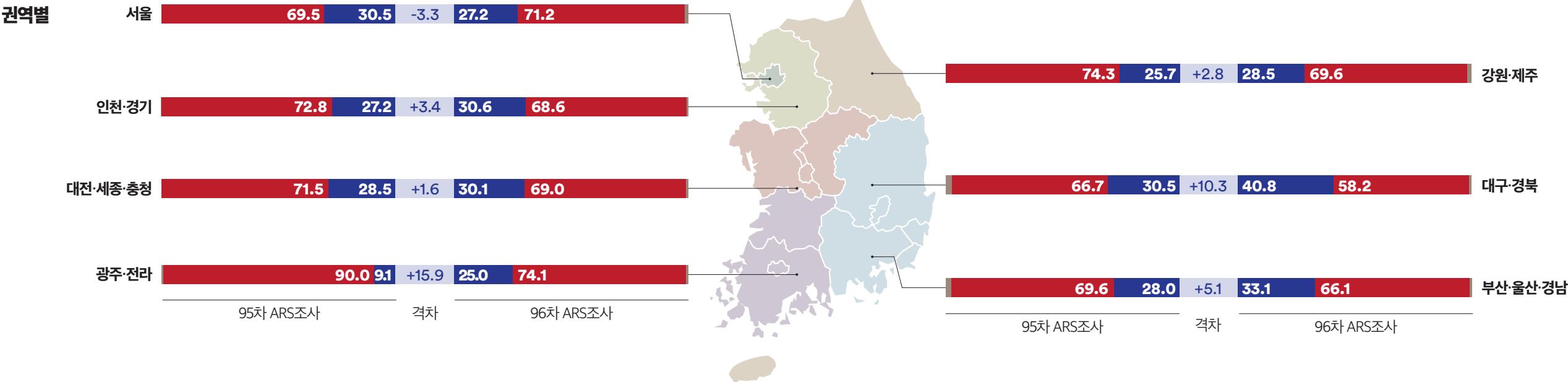
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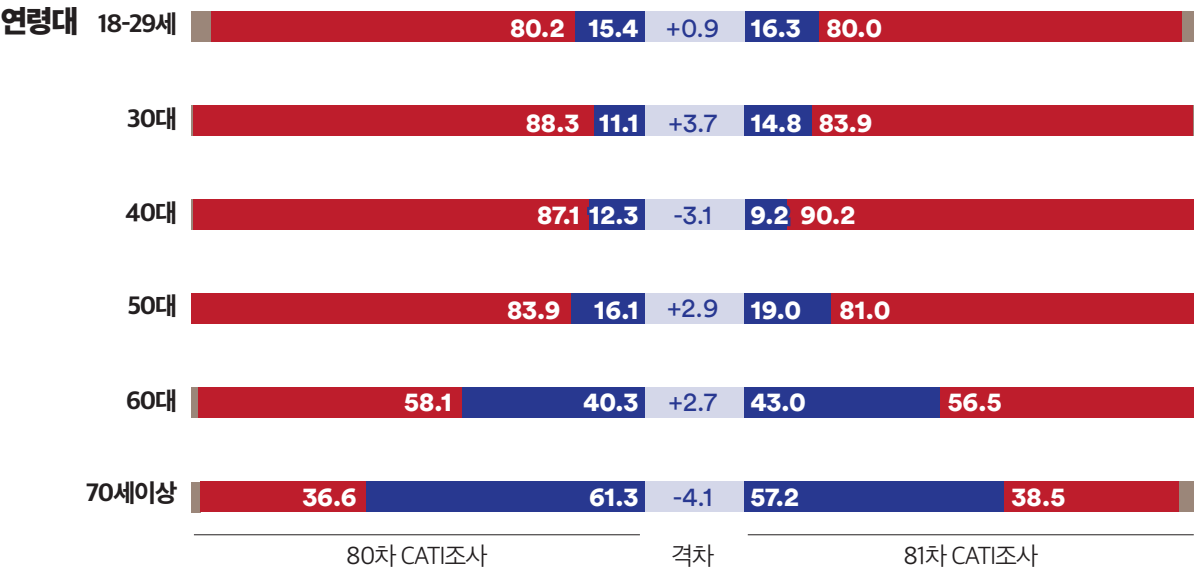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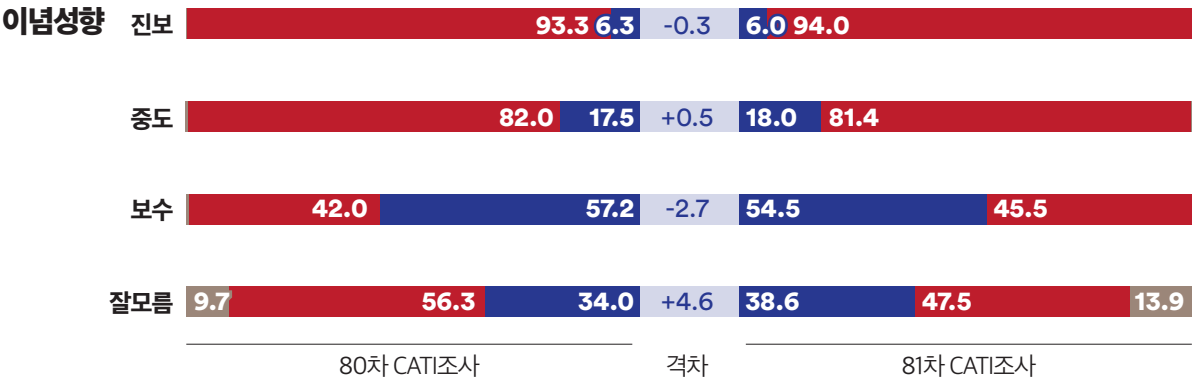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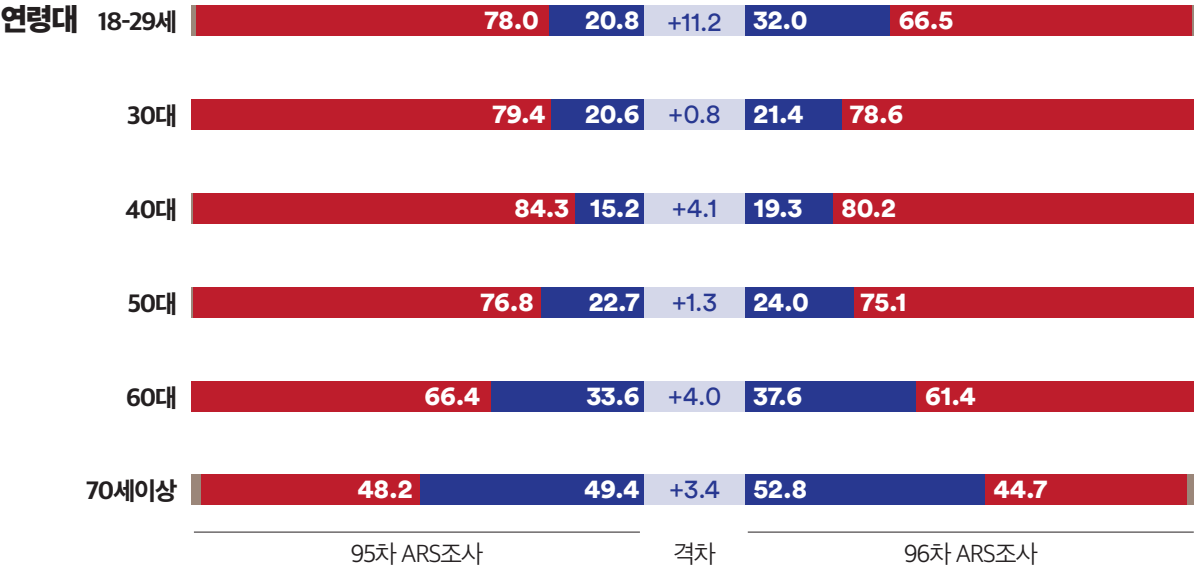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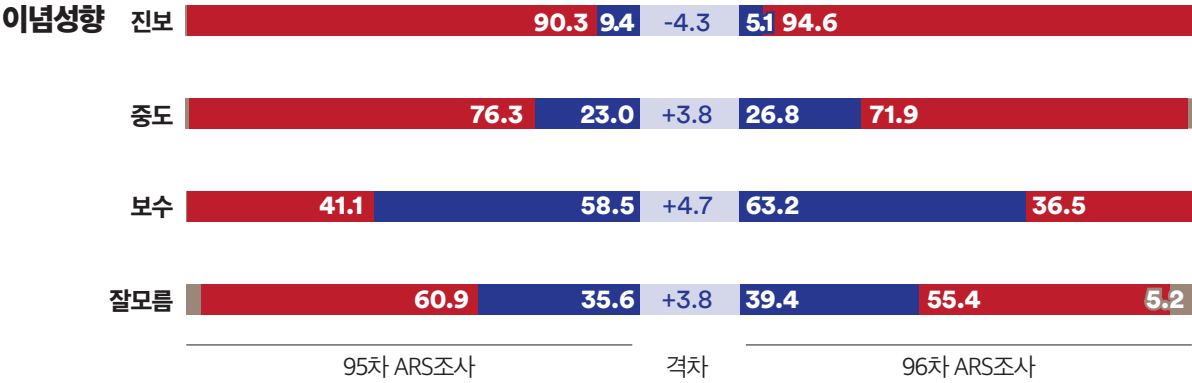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ARS



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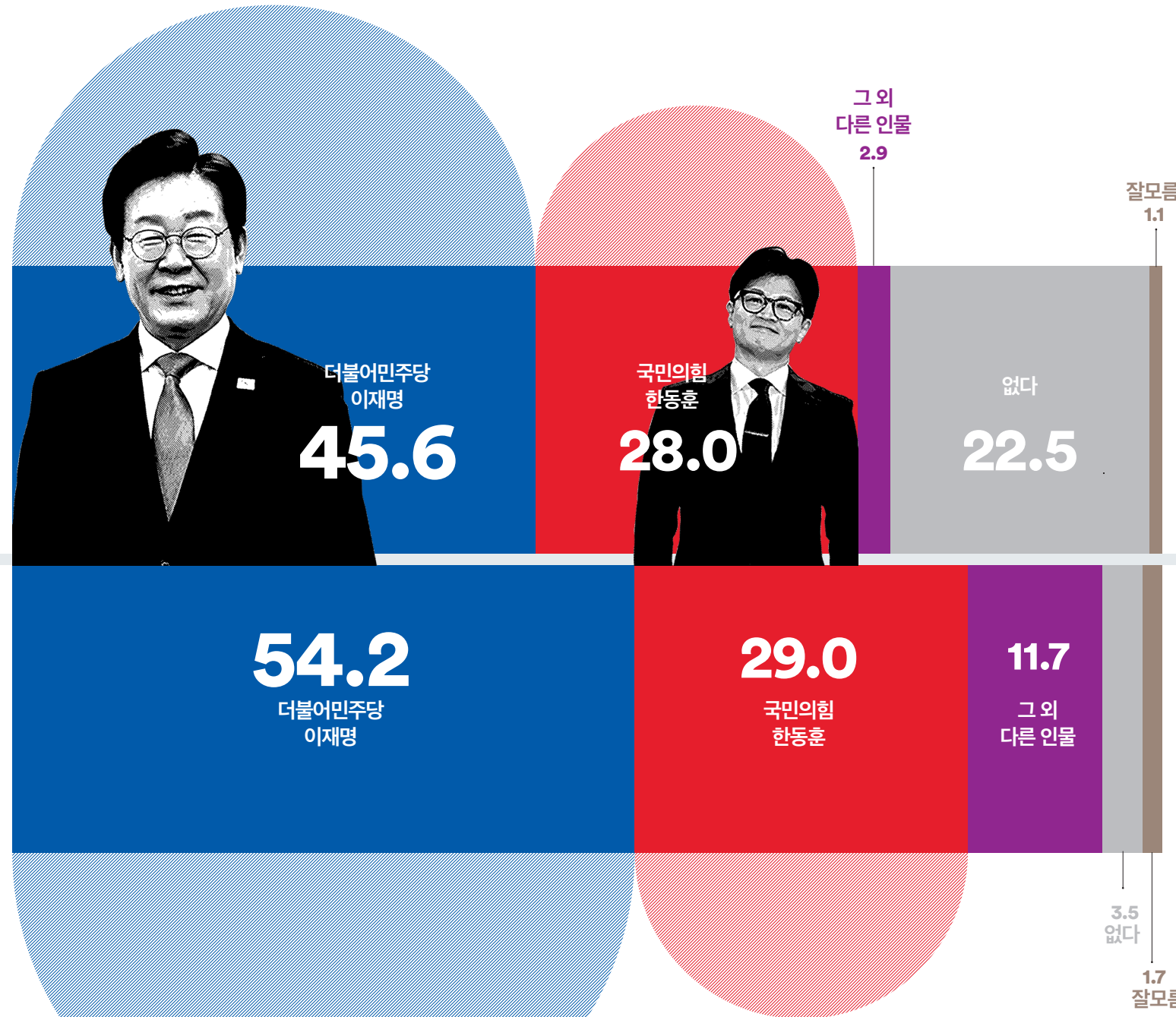
잘하고 있다

잘못하고 있다

모르겠다

Q. 만약 차기 대선에서 다음 두 인물이 맞붙는다면,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?

CATI



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 결과 CATI는 45.6%, ARS는 54.2%가 '이재명'을 지지하겠다고 응답(후보간 격차: CATI 17.6%p, ARS 25.2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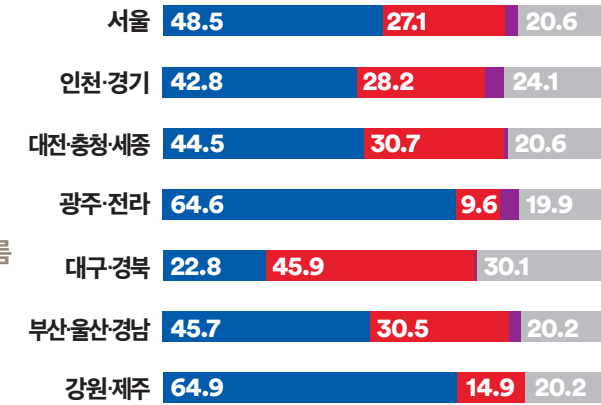
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및 남,녀 모두 '이재명'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
50대 이하 모든 연령대(ARS 60대 포함)에서 '이재명'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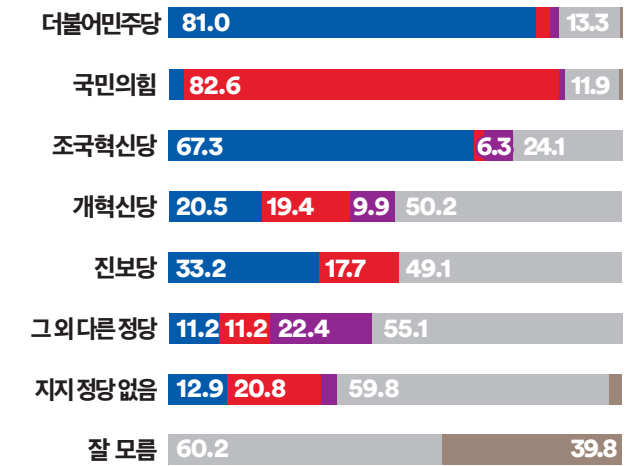
두 조사 모두 지지정당이 없다는 계층에서 '한동훈'이 '이재명' 대비 오차범위 내 앞서고, 보수층은 '한동훈' 우세

두 조사 모두 진보층 및 중도층에서는 '이재명'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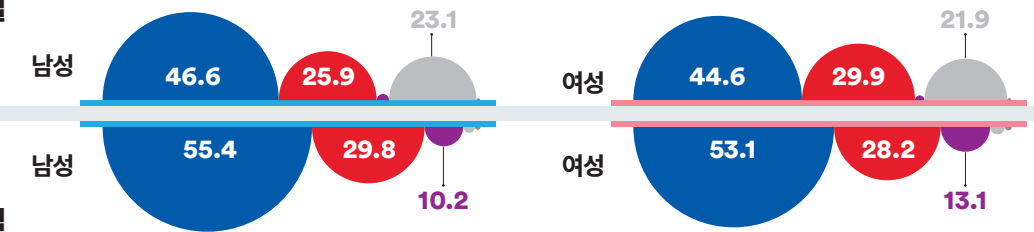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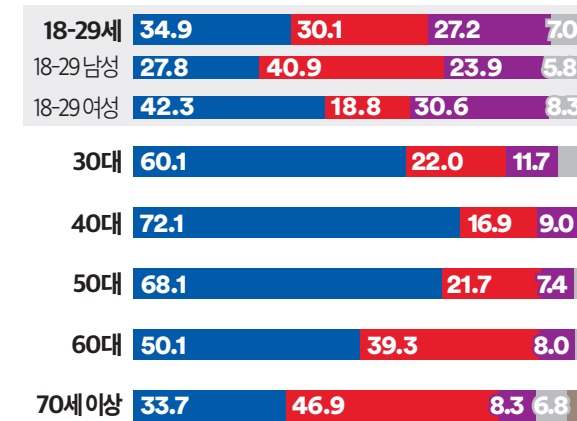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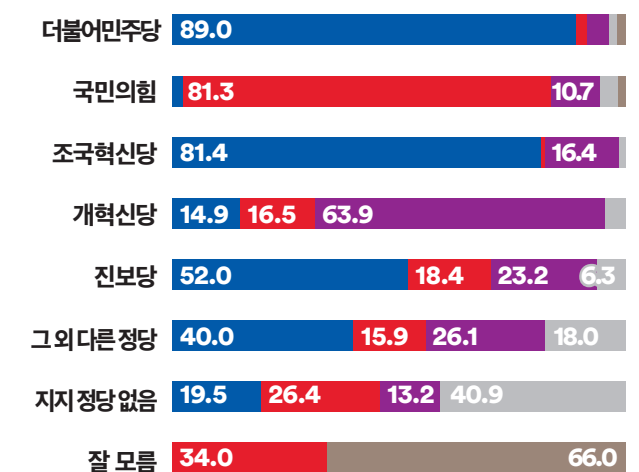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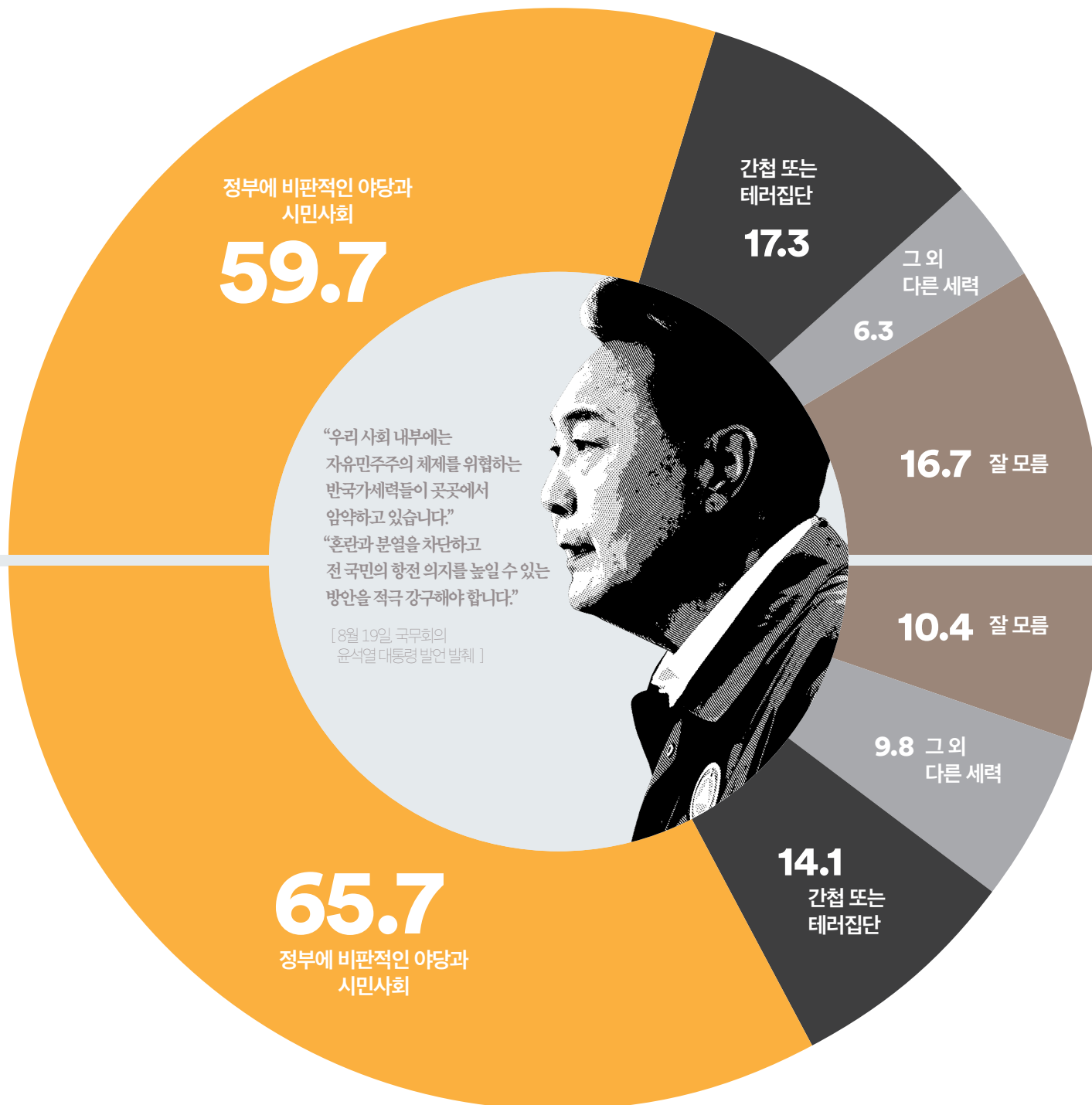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■ 국민의힘 한동훈 ■ 그 외 다른 인물 ■ 없음 ■ 잘 모름



Q.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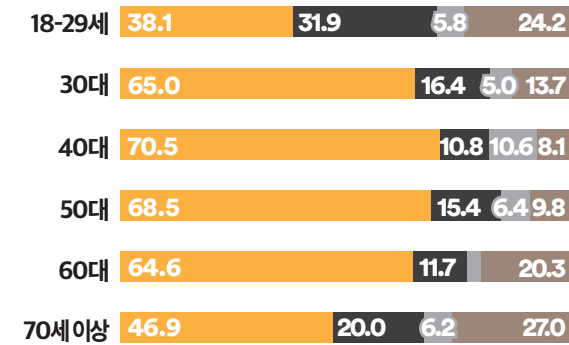


“우리 사회 내부에는
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
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
암약하고 있습니다.”
“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
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
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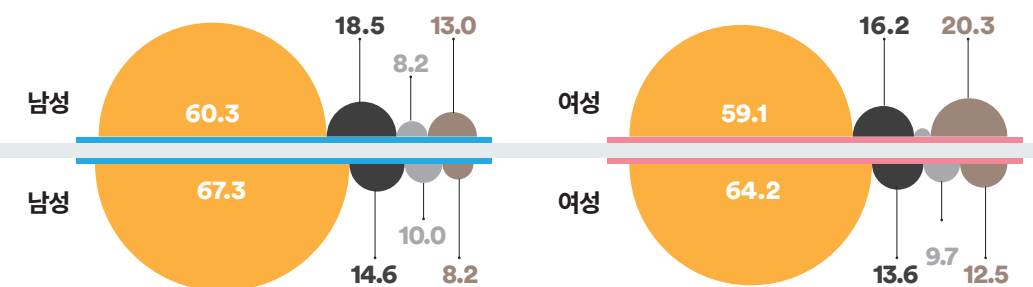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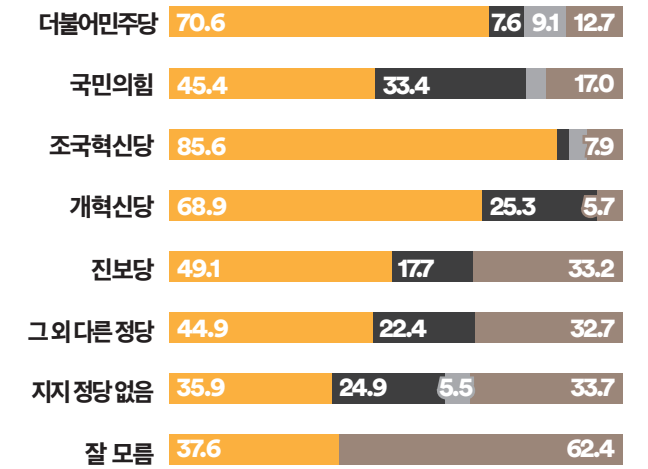
[8월 19일 국무회의
윤석열 대통령 발언 발췌]

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은 ‘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’라고 응답
두 조사의 모든 권역 및 성별, 모든 연령층에서 ‘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’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도 ‘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’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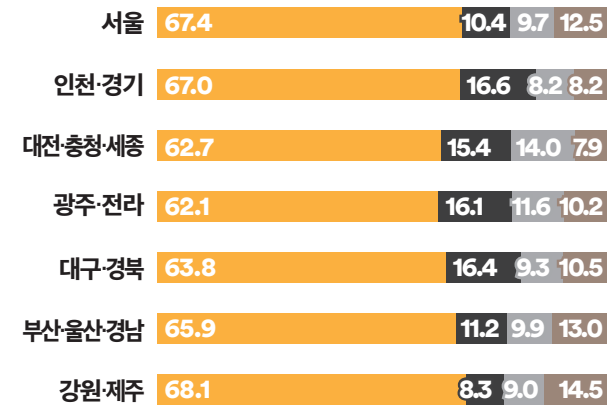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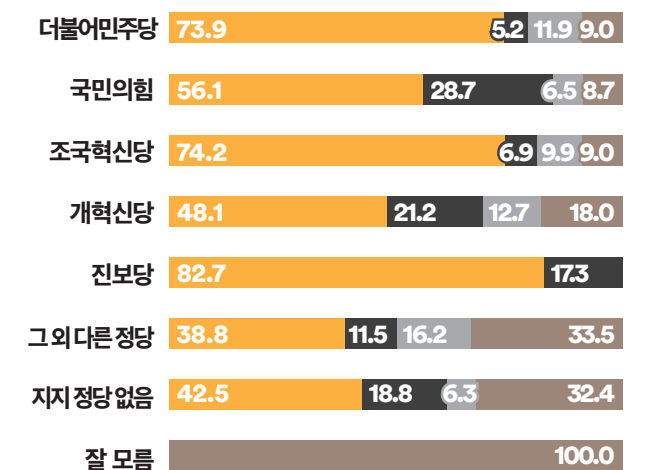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권역



정당지지도



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간첩 또는 테러집단 그 외 다른 세력 잘 모름

Q.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은 ‘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다’는 지적에 “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”이라고 말했는데요, 김태호 차장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

CATI

“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,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.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.”

[8월 16일 KBS 뉴스라인 W에 출연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중]


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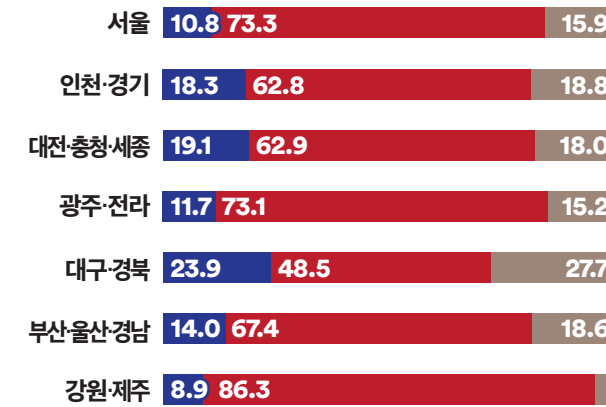
한일관계에 대해 “중요한것은 일본의 마음”이라고 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는것이 적절한지 물어본 결과,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‘부적절하다’고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50.1%p, ARS 42.8%p)

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‘적절하지 않다’는 응답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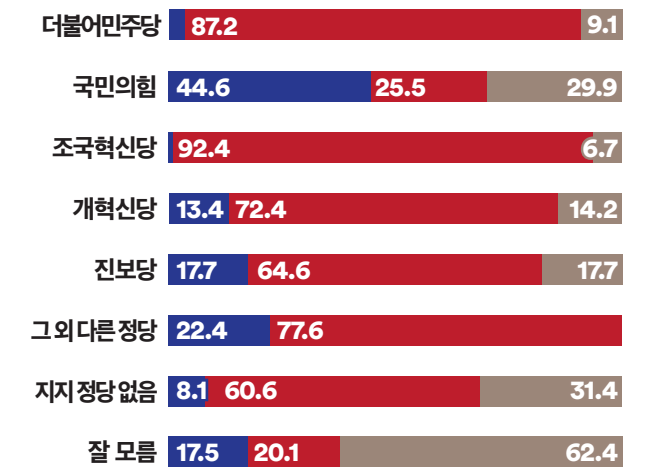
국민의힘 지지층은 두 조사 모두 ‘적절’ 응답이 우세

보수층은 CATI는 ‘적절’ 36.0%, ‘부적절’ 42.6%로 ‘부적절’ 응답이 소폭 앞서고, ARS는 ‘적절’ 44.1, ‘부적절’ 37.4%로 ‘적절’ 응답이 소폭 앞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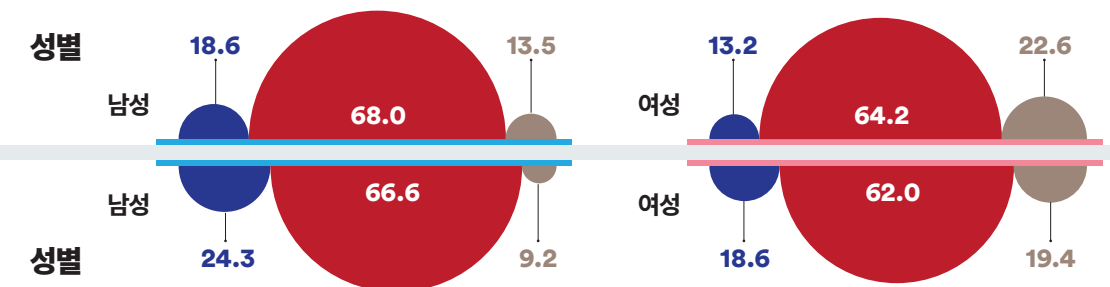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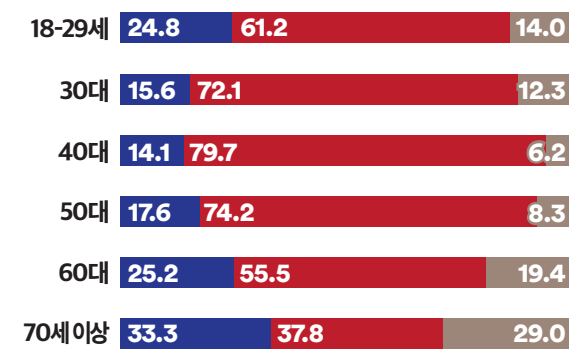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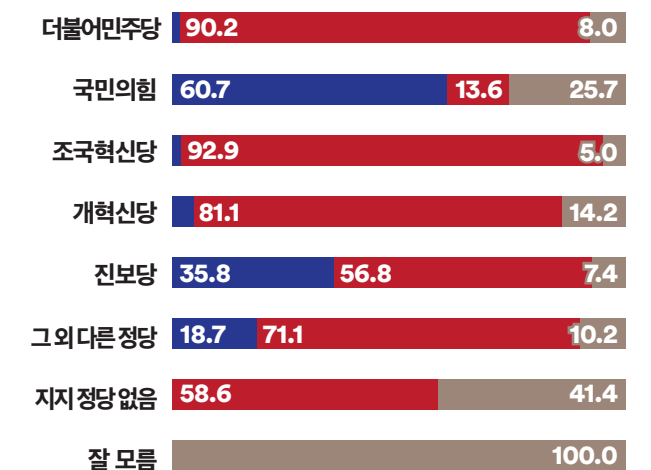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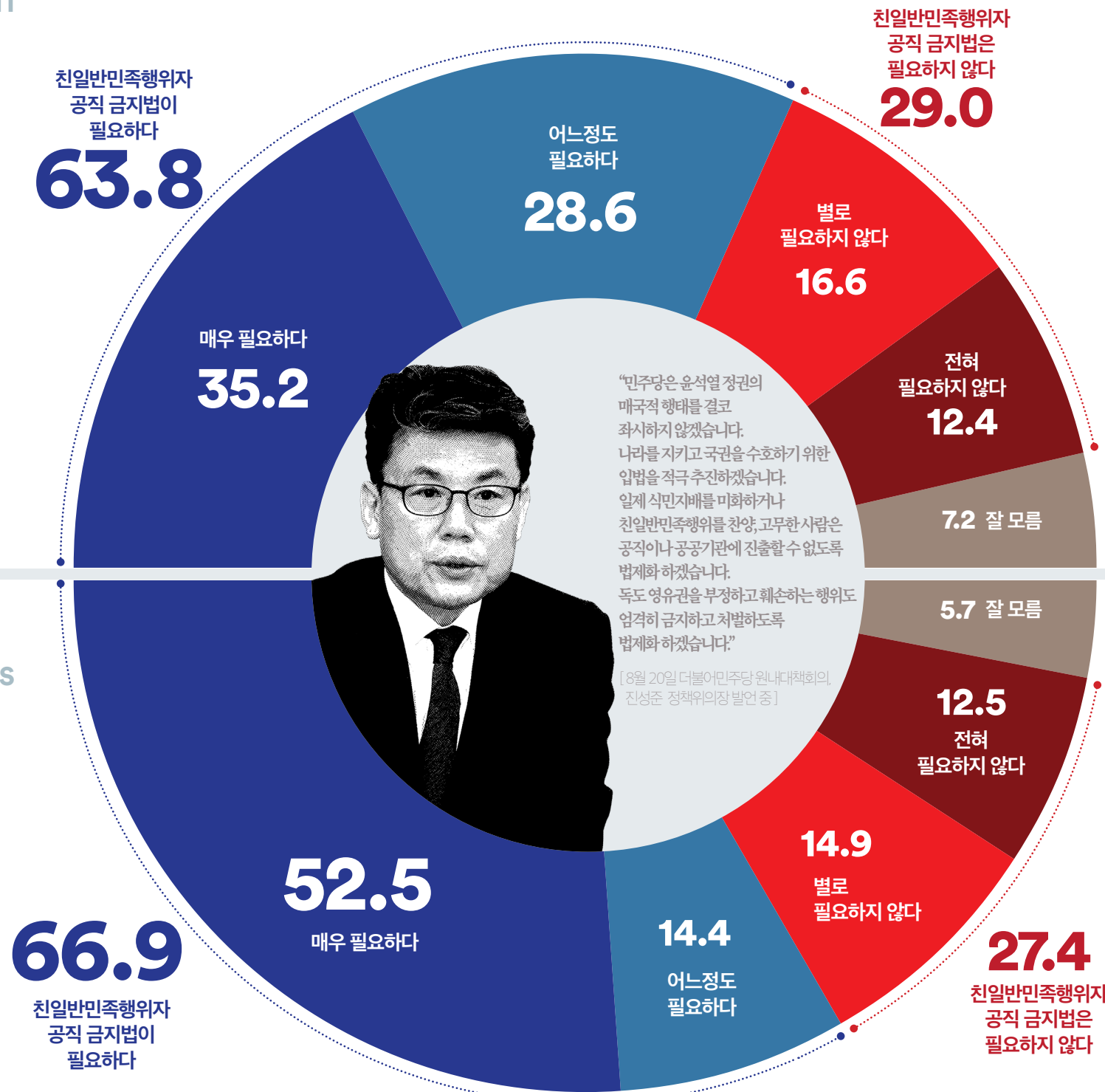


■ 적절하다 ■ 적절하지 않다 ■ 잘 모름



Q. 더불어민주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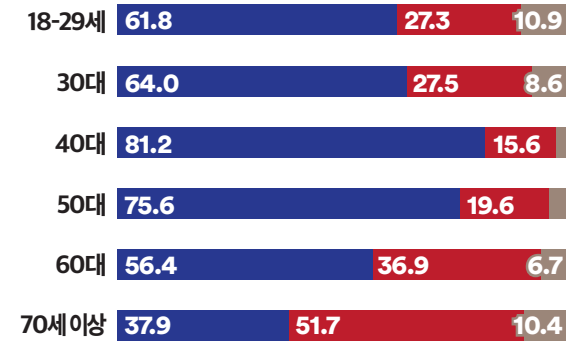


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‘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 금지법이 필요하다’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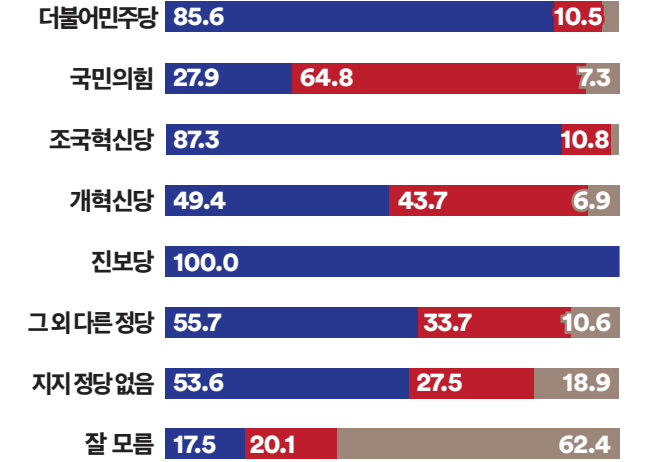
두 조사의 모든 권역, 60대 이하 연령대(ARS 70세 이상 포함)에서 ‘필요하다’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‘필요하지 않다’는 응답이 우세했고, 보수층은 CATI조사는 ‘불필요’앞서고, ARS조사는 박빙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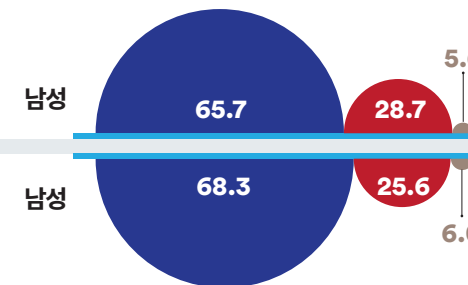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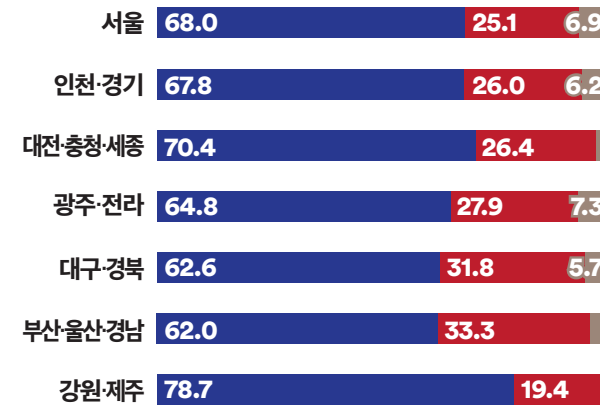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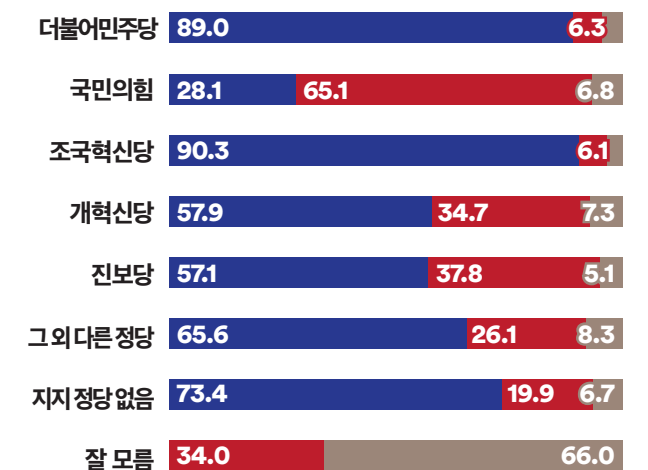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정당지지도



■ 필요하다 ■ 필요하지 않다 ■ 잘 모름



WWW.
FLOWERRESEARCH.
COM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WR_202408_04
